

한여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제1회 한여울초등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

회의일시 및 장소

2023. 5. 18. (목) 15:00 ~ 16:30 실과실 (4층 실과실)

참석자명단

출석위원: 10명

출석교직원: 3명

회의진행순서

- | | | |
|----------|----------------|---------|
| 1. 개회 | 4. 지역위원 당선증 수여 | 6. 안전심의 |
| 2. 국민의례 | 5. 위원장 개의 선언 | 7. 기타협의 |
| 3. 학교장인사 | | 8. 폐회 |

상정안건

안전번호 1. 2023학년도 한여울초 졸업앨범제작 계획(안)

안전번호 2. 2023학년 유치원 생존수영계획 운영계획(안)

안전번호 3. 2023학년도 두드림학교 운영계획

심의결과

안전번호 1. 2023학년도 한여울초 졸업앨범제작 계획(안)

가. 발언내용

○ 담당자(장○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록들을 모아 졸업앨범을 제작하고자 함.

○ 질의사항 : 1. 학운위 수익자 사업에 대한 학부모 의견 신청 여부 - 신청자 없음으로 보고
2. 앨범 내용 구성 항목 중 학부모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 선정된 업체와 협의 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나. 결정사항: 원안가결

안전번호 2. 2023학년 유치원 생존수영계획 운영계획(안)

가. 발언내용

○ 담당자(김○혜) : 2023 생존수영교육 시범유치원 사업을 신청하여 한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교육 운영계획에 대해 심의받고 추진하고자 함.

-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관내 9개 유치원 중 병설유치원은 본교가 유일함.

○ 질의사항 : 학부모 8명(유치원 자원봉사자 1명, 학부모 7명)에 대한 출장비 지급에 대한 예산 사항이 없음 - 실시 장소가 여비 지급 안에서 실시되기에 편성할 수 없음.

나. 결정사항: 원안가결

안전번호 3. 2023학년도 두드림학교 운영계획

가. 발언내용

○ 담당자(전○원):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지원 조례 제6169조, 법 32조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의거 두드림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자 함.

○ 질의사항

1. 학년이 다른데 어떻게 반영되나요? - 학생과 교사 1:1로 진행되므로 학년이 달라도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

2. 5, 6학년 대상자가 없는 이유 - 본 프로그램은 심리적인 불안 등의 학생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과보충 프로그램과 성격이 다르게 진행됨. 선정 절차는 학습지원대상자를 담임교사로부터 추천받아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5명으로 구성됨)에서 대상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학부모 동의 신청을 받아 대상이 결정되는 절차임. 따라서 5, 6학년에서는 선정 대상이 없었음.

나. 결정사항: 원안가결

기타 협의

○ 건의사항

- 운동장 축구 교실 등 방과 후 활동과 유치원 모래 놀이터 사용시 햇빛을 가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차양막 설치 건의 - 교육청 현안 사업 신청시 검토하여 예산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외부인 출입으로 안전 문제 대비 방안으로 진행하기로 한 지문인식 시스템 사업 진행 사항 요청 함. 낮은 임금으로 채용이 늦어지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를 학교 예산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 - 모든 출입문에 지문인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번호입력 방식으로 외부인 출입 제한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또한 방과 후에도 학교 배움터 지킴이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주차장 차단기 설치하고 출입자들은 학생 안전을 위해 교직원, 방과후 강사 등 출입요건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 -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학생 안전을 위해 행정실과 함께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설치되도록 노력하기로 함.

- 학교 시설 문제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학교측의 노력 사항 -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예산으로 문제점을 바로 고칠 수 없고 하자 보수를 신청한 후 시행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시행하기에 늦어지고 있음. 위원들의 요청대로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시행사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으로 보수 공사 시기를 단축하기로 함.